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EAUTIFUL BROKEN THINGS

가제 : 아름답지만 부서진 것들

저자 : Sara Barnard

출판사: Macmillan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고등학교 생활을 막 시작한 소녀에게 시작된 첫사랑,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

생일이 빨라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막 열여섯 살이 된 캐디. 엄마는 남자 아이들도 초대하라고 하셨지만, 캐디는 그 쪽엔 영 관심이 없다. 여학교에 계속 다녀서 대화를 많이 나눌 만한 남학생들을 많이 못 만나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캐디의 가장 친한 친구 로지는 정반대다. 파티에 가면 캐디가 밤새도록 케이크 접시를 앞에 놓고 여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동안, 로지는 항상 적극적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춤을 추곤 한다. 캐디는 엄마의 말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자신도 제대로 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일년 내에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다짐한다.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순결을 잃거나, ‘인생을 바꿔놓을 큰 사건’을 겪거나, 셋 중 하나는 경험하고 말겠다고 말이다.

다소 희한한 캐디의 세 번째 목표는 언니 타린과 절친한 친구 로지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다. 캐디는 누구나 살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사건을 겪고, 그 사건들이 한 사람의 매력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캐디 자신은 열여섯 생일 까지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아니고, 10년째 곁에 있는 절친한 친구도 있고, 심각한 병에 걸린 적도 없고 가까운 사람이 죽은 일도 없고,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적도 없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일도 없어서 아직 그 중대한 사건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 캐디의 눈에 로지와 타린은 자신과 사뭇 다른 인생을 살고, 덕분에 뭔가 남들과 다른 매력과 깊이를 가진 사람들로 보였다. 로지는 채 세 살도 되지 않았을 무렵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데다, 열한 살 때는 아직 아기였던 여동생이 유아돌연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캐디의 언니 타린은 열여덟 살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랑을 닮은 우정, 비극적인 결말, 한 소녀에게 찾아온 마음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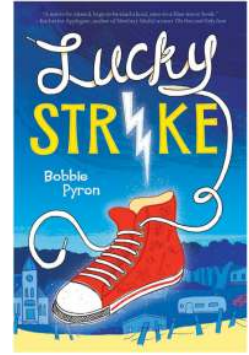
군센 다짐으로 새학기를 시작한 캐디. 하지만 로지와 떨어져 다니게 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시작될 새로운 1년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국무총리를 장래희망으로 정한 페미니스트 타니샤나, 수년째 토론 활동에 참여하며 공정무역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바이올렛 같은 친구들에게 딱 어울리는 엄격한 여학교에서, 캐디는 자신이 과연 성적이냐 다른 활동 면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학교 생활에, 로지가 학교에서 수잔이라는 새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캐디. 개학하자마자 수잔과 급속히 가까워진 로지는 언젠가부터 문자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수잔 이야기만 하고 칭찬을 늘어놓는다. 급기야 수잔이 캐디와도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만날 자리를 만드는 로지. 자신도 모르게 늘 로지의 시선을 신경쓰며 가장 친한 친구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캐디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낀다. 그 때만 해도, 캐디는 자신이 세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세 번째가 실현되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20대 초반의 신예 작가가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과 닮은 십대 여자 아이들의 우정을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심을 이야기하듯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는 한 소녀의 슬픈 첫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새라 버나드(Sara Barnard)는 YA 소설을 세부 전공으로 글쓰기 공부 중인 학생으로, 십대 청소년들의 문제에 주목한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 위 소설은 데뷔작이다.

제목 : LUCKY STRIKE  
가제 : 행운을 몰고 온 벼락  
저자 : Bobbie Pyron  
출판사: Arthur A. Levine Books  
발행일: 2015년 2월 2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세상 누구보다 불운한 소년, 생일날 마른 하늘에 친 벼락을 맞고 가장 운 좋은 아이로 바뀌다!**

네이트 할로우만큼 지지리 운 없는 아이는 없었다. 네 살 때 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할아버지와 트레일러에서 근근히 생활하는 네이트는 월 해도 실패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들만 가득하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동전 던지기 해도 단 한 번도 답을 맞춰본 적이 없다. 열한 살 생일을 맞이한 네이트는 제발 하루 만이라도 운이 따라주길 소망하는데, 역시나 가장 운 나쁜 사람이나 겪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학과 논리, 수학을 사랑하는 똑똑한 친구 제네시스와 밖에서 미니골프를 치고 있는데, 맑은 하늘에서 난데없이 벼락이 치더니 네이트가 벼락에 맞고 만 것이다! 제네시스가 순간적으로 발휘한 기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네이트. 그런데 그 날 이후 네이트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세상 누구보다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학교에서는 야구 경기 중에 홈런을 날려 팀을 우승으로 이끈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속도로 치솟고, 늘 시커멓게 태워먹던 토스트까지 바삭바삭 얼얼하게 굽힌다! 게다가 네이트의 행운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지, 늘 벌이가 시원치 않던 할아버지는 어부 일로 떼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저 사람들 주변만 맴돌던 아웃사이드에서 순식간에 모두가 주목하는 중요한 인물이 된 네이트. 하지만 네이트에게는 좋지 않은 일도 계속 따라다닌다.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새 트럭을 샀지만 질투 어린 이웃들이 몰래 찾아와 다 망가뜨려버리고, 네이트는 너도나도 친구하자고 달려드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젖어 늘 곁에 있어주던 좋은 친구 제네시스에게 등을 돌리고 만다. 네이트와 멀어진 제네시스는 모든 아이들이 놀려대며 따돌리는 아이와 가까워진다. 게다가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네이트의 삶이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지자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허리케인까지 마을을 향해 다가온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뀐 소년의 변화를 통해 ‘행운’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처음에는 행운이 온 줄 알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만 생기고 친한 친구와도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네이트는, 생일날 번개를 맞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길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계획을 준비한다. 이제 우정과 마을을 모두

지키려면 행운 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번개를 맞고 행운이 생겼으니, 번개를 한 번 더 맞아야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네이트. 과연 네이트는 이 위험천만한 목적을 달성하고, 바다거북 동지를 보호하자고 다짐했던 제네시스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두 아이가 사는 파라다이스 비치에 허리케인이 휘몰아치고, 다시 번개가 치고, 이번에는 바닷가에 방치된 거북을 챙기던 제네시스가 번개를 맞고 만다. 네이트가 제네시스를 겨우 살려냈지만, 제네시스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과 네이트는 제네시스를 대신해 거북을 지키기 시작하고, 제네시스는 마침내 깨어난다. 다시 시작된 일상, 두 아이의 행운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마법 같은 사건의 힘을 조금 빌려, 운명, 확률, 날씨를 소재로 행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재미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바비 파이런(Bobbie Pyron)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서로 일하며 《DOG'S WAY HOME》, 《THE DOGS OF WINTER》 등을 쓴 작가로, 《THE DOGS OF WINTER》는 2011년 ‘Kirkus 선정 올해 최고의 아동도서’로 선정됐다. 발표한 소설은 체코, 영국, 독일,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출간됐다.